

전통시장 57%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모른다”

11일 오전 남광주시장, 과일을 파는 곳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여부를 묻자 상인들은 손사래부터 쳤다. 블랙프라이데이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상인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행사가 아니어도 20~30%의 예누리는 있는 게 시장이다”고 말하는 상인도 있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전통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다. 국내 전통시장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6~7일 166개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한 곳은 20곳(12.0%)뿐이고 나머지 146곳(88.0%)은 참여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166개 전통시장 관계자 조사

사업절차·경비 지급 늦어 88%가 행사 불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자체를 모른다든 전통시장도 전체의 56.6%에 달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146개 시장 측에 불참 이유를 문의한 결과, ‘행사를 인지하지 못해서’(65.8%)라는 응답이 ‘시장 상인의 무관심과 반대 때문’(25.3%)이라는 답보다 훨씬 많았다.

사정이 이런 것은 정부의 일일한 대처 탓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광주 무등시장과 목포 자유시장 등 광주·전남 전통시장 7곳을 비롯해 전국의 전통시장 200곳이 내 추진작을 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

사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광주지역에서는 무등시장, 봉선시장, 남광주시장, 충장로상점가, 말바우시장, 양동복개상가 등 6곳이 참여하고 전남에서는 목포자유시장만이 할인 행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부는 지난달 30일에야 사업을 선정하고, 블랙프라이데이 첫날인 지난 1일 시장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지원받아 승인을 했다. 모든 사업 절차가 너무 늦게 진행된 셈이다. 또 정부에서 블랙프라이데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시장상인회에 늦게 지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떨어뜨렸다.

반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차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행사 진행이 이뤄진다면 전통시장의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도 남겼다.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20개 시장 가운데 16곳은 매출이 20% 이내로 상승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50.6%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정례화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개최된다면 전통시장들은 정부가 ‘홍보비 등 지원 확대’(41.0%), ‘전통시장 참여에 대한 홍보’(28.3%), ‘대형 유통업체에 치우친 홍보 자체’(22.3%)를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매운맛 대신 부드러운 단맛 ... 양파잼 인기

이마트 매출 1년새 19% 늘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무안 양파로 만든 양파잼이 뜨고 있다. 11일 이마트에 따르면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체브랜드로 양파잼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양파산지인 전남 무안에서 수확한 양파 1개를 재료로 만든 양파잼을 병당(270g) 3680원에 팔고 있으며, 출시 1주일 만에 700여개가 팔렸다고 소개했다.

양파는 파·마늘과 함께 매운맛을 대표하는 채소지만 가열 조리하면 특유의 깊은 단맛이 우러나는 점에 착안해 설탕과 레몬즙

등을 더해 잼으로 만들었는데 매운맛 대신 부드러운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양파잼은 빵에도 어울리고 육류 요리를 할 때 잡냄새를 없애준다.

이마트는 올해 1~10월(7일까지) 식빵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늘었고, 이 기간 잼 매출도 19% 늘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쿡방 열풍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설탕·물엿 대신 잼을 응용한 요리법이 소개돼 잼 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집에서 잼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면서 수제 잼 인기”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결혼 시즌 ‘스페셜 웨딩 박람회’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8일까지 유명 웨딩드레스 등을 판매하는 ‘스페셜 웨딩 박람회’를 연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공정위 ‘호갱’ 양산 휴대전화 보험상품 실태조사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이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나서기로 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호갱’은 어수룩해서 손쉽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뜻하는 말이다.

공정위는 11일 “휴대전화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과거보다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577만9000명으로, 작년 전체 가입자 수(602

만3000명)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세다.

문제는 이동사별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한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 고객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 보험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 기준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금방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도 이동통신사는 무조건 첫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 시점에서 수개월만 지나면 이동사가 요구하는 수십만원의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새 전화기를 사는 게 나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삼성전자 실적 호조·中 부양책 기대

IT하드웨어·자동차·섬유 강세 예상

지난 7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반도체 부문 판매호조 및 환율 효과에 따라 실적 추정치 발표액이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시장예상치 대비 10.7% 상회했다.

이런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타 수출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작용하면서 2000P 상회하여 한 주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역시 채굴장비가 전주대비 26개 감소하면서 2주 연속 감소세 유지되면서 원유 공급과잉 우려 해소 기대감으로 주간 기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번 주는 수급이 비어 있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예상된다. 이번 주 역시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해가 예상된다.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과 미국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으로 추가 상승도 예측된다.

단, KOSPI 2000P 돌파에 따른 펀드 환매 자금 가능성이 있고 13일에 발표되는 중국 수출 지표발표가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작용할 수 있어 2050P 이상 상승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은 수출주의 환율효과가 예상보다 확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형성돼 3분기 여성시즌에 대한 우려는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증시 역시 환율 관련 대형주(IT, 자동차, 인터넷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강세가 중소형주의 상대적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주요 매크로 변수의 방향성이 엇갈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 호전 예상주인 IT하드웨어, 자동차, 섬유, 유틸리티 및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해중 등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윤자웅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방송사 요리 열풍에 조미료시장 뜬다

간장 케첩 등 2.7% 성장

국내 방송들이 앞다퉀 요리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요리 열풍이 불고 있다.

당달아 침체됐던 조미료시장이 다시 뜨고 있다.

11일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가 최근 발간한 ‘2015년 상반기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6월 가정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장·케첩·마요네즈·양념장·액젓 등 조미료 제품 판매가 작년동기에 비해 2.7% 성장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증가 탓에 조미료시장은 정체세를 겪고 있었다고 닐슨코리아는 전했다.

특히 ‘백종원표 만능간장 요리법’이 커다란 관심을 받으면서 국간장과 조리간장의 판매액이 작년 동기보다 각각 5.3%, 5.4% 늘었다.

간편하게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 매출도 11.4%나 늘었고 마요네즈(7.2%), 케첩(3.6%), 고기양념장(3.7%), 액젓(2.8%) 등에도 수요가 불렀다. 올해 상반기 담배와 약품을 제외한 국내 전체 소비자 시장이 불과 0.4% 성장한 점을 고려할 때 조미료 시장의 이런 성장세는 괄목할만하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질문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